



양계농업

미 국

도계장 비디오 파문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걸쳐 쇼월 지방의 한 식품회사인 프레듀도계장에 잠입하여 목을 따고 날개가 파닥이는 상태로 도계처리되는 비디오를 촬영해 법정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KFC가 이 도계장으로부터 전체물량의 2%에 해당하는 닭을 구입한 것을 포착하고 KFC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프레듀사는 즉시 스팀라인을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KFC 또한 해당 회사가 안전한 닭고기 생산에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어 향후 닭고기 소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WATT)

중 국

닭고기 수출·입 큰폭 감소

중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7개 주요 닭고기 생산지역의 생산량(1/4분기)이 12.9% 감소한 것으로 농림관련 자료에서 밝혔다. 감소가 가장 심한 곳은 헤베이, 장수, 산둥성이었으며 2/4분기부터는 예년과 같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가금육 수출과 수입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수입은 45.9%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두나라의 수출량이 무려 72%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지역인 산둥성과 광둥성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오히려 수출량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여줬다. 수출 역시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었으나 HPAI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금년 전반기 동안의 가금육 소비량은 1인당 4.04kg으로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닭고기 소비량이 2.47kg으로 큰폭 감소한데 비해 오리소비량이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닭고기가 격은 2/4분기 1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PI)

말레이시아

Chicken King 패스트 푸드 해외 공략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패스트 푸드점인 Chicken King(CK)이 오는 3년내에 10여개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K는 KFC와 케니로저스치킨과 같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크랑벨리 지방에 내년까지 10개의 판매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K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최종 협상을 끝마쳐 입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나이지리아, 이란도 곧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글라데시의 다카시의 변화가에서는 CK 메뉴들이 판매가 되는 등 CK가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K의 특징은 지역색을 가미하여 생선 등과 함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PI)

인도

‘계란, 콜레스테롤, 지방과 건강 다이어트’ 책 출간

인도에서는 Narahari 마드라스 수의대학 교수가 지난 2003년 출간한 ‘계란, 콜레스테롤 지방과 건강 다이어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계란이 자연이 가져다준 완전식품이며 모든 연령층에게 소화가 잘되는 식품이라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유로 계란을 꺼리고 있는데 대해 최근 연구결과 계란 섭취와 혈청콜레스테롤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계란소비가 늘고 있으나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서만은 계란소비의 변화가 적은 것이 미신과 선입견에서 나온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76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계란다이어트, 계란 가공법 등 건강식으로의 계란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www.poultrytimesofindia.com)

북한

조류독감 방역에 만전 촉구

북한에서는 지난 가을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류독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농업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각 농업성 산하 수의방역국에서는 조류독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산짐짐승(가축), 산 가금, 축산물, 알, 가공품 등 이런 대상물을 구별해 철저히 검역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리나 닭, 돼지를 기르는 모든 단위는 항상 가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검진을 하고 수의 방역기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닭공장, 오리 공장들에서 관리공(종업원)에 대한 검진사업을 제때 해 감기에 걸리는 관리공들이 없도록 하는 문제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YTN)